

2015년 5월 12일 (화) 유가연 의 일기

자원고등학교 1학년 8반 8번 유가연

2015년 5월 12일에 나는 아침부터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엄마의 생일파티 준비를 하였다

나는 평범한 아니 엄마생일중에 제대로 챙겨드린거는 이번 2015년이 처음해드린거 같다.

이번 생일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정상답게 챙겨드란게 죄송한 마음과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마음으로 꼭두새벽에 일어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생일을 챙겨드리는 하루를 시작했다.

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막상 일어나니 무엇부터 해야할지 몰랐다

미역국을 끓여야하는데 침이고 끓여보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끓여본거 같아 되게 갑자기 머리가
백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래도 여서 면발을 하고 있으면 시간도 압는태다가 감옥같아야 할

생일파티를 망치게 되는 내외계회를 없애줄까 해서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하였다.

생일파티를 준비하는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다. 내가 엄마생일을 음식이런거 하나하나 다하고

하니 일 엄마가 된 느낌이었고 준비하는 걸 통해 엄마의 마음을 알게되는 소중한 계기

가 된것같고 엄마가 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준비하며 느꼈다.

또 다 생일상을 차리고 나니 몇년은 늙은느낌이었고 나는 끝까지 툭치 않기 위해서

탁자에 편지와 케이크 그리고 미역국 등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엄마보고 일어나시고 ~~와~~ 일어나자마자

어떤마음. 어떤강이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학교를 갔다.

오늘따라 학교에서 유난히 시끄럽고 개이웃하게 하루를 보내고 핸드폰을 보니 엄마한테 문자 내용이

~~있~~ 있었었다!! 엄마가 나한테 문자를 강게 3통이보상 보낸적이 있는데 5통이나 왔으니

기대하며 보았다. 문자내용은 고맙다고 미역국 끓이고 가서 감동먹었다. 할튼 이런말로

고맙다는 내용 사랑한다는 이 문자를 마지막에 딱 보내니까 막 울음내를거 같고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드려.. 내가 엄마생일때 빨리 일어나 조금만 과하면 엄마가 이렇게 감동을 ~~받~~ 느끼고

조용하는데 대간작을해드렸을까... 라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가 지나갔다!

다행히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